

# Yeosu Web Contents

2023년 11월 30일 22시 35분



# 목차

목차	2
이순신과 여수 거북선	3
생애의 종착지	3
거북선 건조지	3
선소	3
계선주	4
벽수	4
망마산 동백말채	4
굴강	4
효의 실천지	4
국가사적 1호	4

## 생애의 종착지



이충무공의 생애 가운데 장수로서의 덕과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구국제민의 뜻을 편 때가 전라좌수영과 인연을 맺은 8년간 (1591~1598)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.

48살(1592년 4월)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우리 수군의 활약으로 전세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49살(1593년 8월)에는 조정에서 전라 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로 삼아 권한을 많이 주어 활약케 하였으나 53살(1597년 3월)에는 왜군과 원군의 모함으로 투옥되었다가 백의종군의 억울함도 당하기도 하였다.

53살(1597년 8월)에는 다시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으며 54살(1598년 11월)에는 순천 왜교로 후퇴한 소서행장의 퇴로차단작전을 명나라 장수 진린과 더불어 강행하던 중 1598년 11월 19일 미명에 여수반도 건너편 남해도 관음포 앞바다에서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다.



판옥선 선소



벽수



굴강



선소 풀뭇간

## 거북선 건조지

### 선소

판옥선, 병조선, 전투선, 맹선등을 제작하고 수리한 조선소임. 소재지는 여수시 시전동 708번지 일대

- 선소는 굴강 뒤로 가덕도와 장도가 천연의 방파제로 사용 " ☒☒서 보면 육지요, ☒☒서 보면 바다"이면서 파도가 잔잔하여 호수와도 같은 천연의 요새임
- 유적으로는 배를 정박시켰던 굴강을 비롯하여 무기 제작처로 추정되는 대장간(풀무간)-세검정-군기창고등의 터가 남아 있고, 마을 입구에는 벽수가 세워져 있다. 병사들의 훈련장과 적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천연적인 요새인 망마산이 주변에 있다.



## 계선주

석암으로 1592년 제작되었고 야간에 경비병 역할을 하고, 주간에는 거북선을 메어 두는 기둥으로 사용

## 벽수

돌로 깎아 세워 둔 일반인을 금한다는 경계표시와 굴강 입구, 일반인이 다니는 오솔길등 3 곳에 6기가 세워져 있다.

## 망마산 동백말채

이 충무공께서 임진왜란시 수군과 기마병을 훈련시키면서 산정상에 꽃아둔 동백말채가 살아 자라고 있다. "동백말채가 살아 있으면 나의 영혼도 살아 있는 것이요, 이 동백말채가 죽어 있으면 나의 영혼도 죽은 것이다"라는 말씀을 남겼다는 전설이 있다.

## 굴강

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 충무공께서 거북선과 판옥선(총지휘선)을 건조, 이 곳 앞바다에서 진수한 곳이기도 하며, 1980년 해군사관학교와 1985년 명지대학교에서 각각 발굴 조사한 결과 철축등 565점의 유물이 출토(1차:113점,2차:452건)되어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중에 있다.

- 유물 : 철축 20점, 철정 54점, 철환 3점, 철판 15점, 동선 7점, 치아 2점, 버루 2점, 노편 2점, 청자 및 회색백자 392점, 평와 편 14점, 기타 54점
- 규모 : 직경 42 m (거북선 2척 규모, 대피 및 건조기능)

## 효의 실천지

임진왜란이 일어난 뒤에 본가는 부인에게 맡기고 77살의 노모(변씨부인)를 아산에서 전라좌수영 근교 ㉠㉡㉢(현 여주시 응천동 송현부락)에 모셨다. 이곳은 본영에서 20리 남짓하여 노모의 안후를 살피기 쉬운 거리인데다 충무공의 군관으로 있는 정대수 장군택 초당인지라 안심하고 모실 수 있는 곳이었다.

장군의 난중일기중에서 노모에 관한 기록은 88일분을 남기고 있어 그의 효성을 짐작할 수 있다. 임란 3년째 갑오년 정월에는 노모와 설을 같이 지내며 "어머님을 뵈시고 함께 한 살을 더하게 되니 이는 난리중에도 다행한 일이다."라고 기록하고 있다. 그리고 모친 생신때 전쟁중이라 직접 가림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기고 있음을 기록에 남겼다.

특히 그가 모함에 빠져 투옥된 뒤 노모가 고을천에서 소식을 듣고 선편으로 아산 고향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풍랑조차 만나 고 통 끝에 82살로 숨을 거두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공의 애달픈 마음, 그러나 금부도사의 재촉에 못이겨 백의종군길을 떠나야 했던 공의 심정은 난중일기를 읽는 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.

## 국가사적 1호

여수의 충민사는 이충무공 순국 3년 뒤(1601년) 우의정 이항복이 사당 건립 제안을 하여 삼도수군통제사 이시연의 주관하에 사당이 건립되고 그후 조정에서 사액하여 국립사당(서원)으로 된 것이다.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

충민사 전경



충민사 전경과 평화 사적비



고유제 고유제



하마비 하마비

현 통영에 있는 충렬사는 순국 65년후(현종4년:1663년)에 사액된 것이며 현 아산의 현충사는 순국 106년후(숙종 30년 : 1704년)에 사액된 것으로 여수의 충민사가 국가적기념사업 제1호지이다.

그러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3곳 모두 사액서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표가 될 1인을 1개 서원 이외에서는 향사 하지 못한다는 원칙과 그 당시 삼도수군통제영이 통영에 있다하여 통영의 충렬사만 남기고 충민사와 현충사는 철폐되는 아쉬움이 있었다.

광복후 1947년 충민사를 다시 세워 관리해 오다가 1993년 6월 1일 국가사적지(381호)로 지정되었다..

# Yeosu Web Contents

